

현역의원 5개 항목 평가... 낙제점 나오면 공천 불이익

새정치 혁신위 공천개혁안 20일 당무위 상정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공천개혁안 준비 작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혁신위가 고강도 공천개혁안을 내놓고 당내 저항을 정면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당내 분란을 피하는 우회로를 선택할 것인지 주목된다.

당 혁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평가위) 구성 방안과 운영 방향에 대한 방침을 정한 뒤 20일 당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평가위는 현역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지역활동, 의정활동 및 공약이행, 다면평가, 선거 기여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하는 기구로, 평가결과가 단일한 지표인 '교체지수'로 나오면 낮은 점수를 받은 의원들은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관건은 현역 국회의원 평가 결과가 교체지수에 포함될 경우, 어떤 불이익을 어느 정도 주느냐다. 현재 혁신위 내에서는 일정한 비율을 정해 하위 점수자를 일괄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는 강한 주장에서부터, 원천 탈락이 아니라 공천 심사시 감점을 주는 형태로 가지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의 쇄신과 혁신 이미지를 위해서는 하위 점수자에 대한 일괄 공천배제가 가장 강력한 카드지만, 이 경우 비주류를 중심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비주류를 중심으로 탈당 및 신당이 거론되고 당 밖에서도 무소속 전정배 의원을 필두로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공천개혁안이 또 다른 분란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전날 밤 개최된 혁신위원-

불이익 정도·방법 놓고 이견

당무위 결과 따라 내분 기로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는 하위 점수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불이익의 방법론을 놓고 입장차가 드러나 혁신위의 고민을 더하고 있다.

최고위에서는 평가위가 직접 불이익을 주는 대신에 그 다음 단계로 실질적인 공천 심사를 담당하는 공천후보추천관리위원회가 심사의 평가 자료를 활용하거나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가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혁신위는 쇄신을 바라는 국민 여론을 따르느냐, 당 분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타협안을 수용하느냐 사이에서 최선의 해법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혁신위가 당내 저항을 감안해 당무위에 구체적인 불이익의 방법을 밝히는 대신 하위 득점자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는 수준에서 보고한 뒤 안건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혁신위 관계자는 "국민 정서를 최우선 고려하겠다"며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내일(18일) 전체회의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혁신위 활동에 비판적이었던 당내 비주류 의원들은 말을 아끼며 혁신위 공천개혁안이 발표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천혁신안이 당내 모든 진영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분란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 창당 60주년 맞아 당명 개정 추진

민주당 회귀 놓고 설왕설래 백서 발간·사진전·심포지엄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60주년 기념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야권의 '적자'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이 번지는 등 분위기가 위기감이 나사겠다"면서 "애당시 일어날 수 있는 당명으로 뜻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명개정 작업이 원만하게 이뤄질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우선 당내에서는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이 많지만, 정작 그 이름은 김민석 전 의원 등이 참여한 원외정당이 선점하고 있다. 야권재편 논의가 활발해지

는 상황에서 이당이 순순히 이름을 양보하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당내 신당과 일각에서도 "당을 만든다면 당명은 '민주당'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신당이 나올 경우 새정치연합과 '민주당' 당명쟁탈전을 불사할 태세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민주당명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함께 투쟁하고 활동한 역사적 축적물이다. 이름이 (같은) 민주당이라고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며 새정치연합의 정통성을 부각시켰다.

작년 3월 민주당과 합당해 '새정치민주

연합'을 만든 안철수 전 대표가 당명개정을 두고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닌 본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점도 당명 개정 상황을 낙관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당명문제는) 대화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우리 당의 역사를 빼면 한국정당사나 민주주의 역사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원시력도 60년 역사의 무게를 이겨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헌·김원기·문희상·이우희·임채정·정세균 상임고문 등 당 원로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관합동 광주역 활성화 방안 찾는다

광주시·북구·민간 전문가 등 참여 TF팀 곧 구성

민관 합동으로 호남선 고속철도(KTX) 운행중단에 따라 공동화 우려가 커지는 광주역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광주시는 지역정착,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광주역 주변 발전도모를 위한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윤정현 광주시장은 17일 시청에서 지역 국회의원인 강기정 의원, 송광운 북구청장, 반재신 시의원 등과 회의를 하고 KTX 운행 중단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전담팀은 광주시와 북구, 시의회와 북구의회, 민간 전문가 등으로 조만간 구성될

예정이다. 윤 시장 등은 광주역 KTX 운행재개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호남선 일부 편수를 정읍역에서 분리·분기해 광주역으로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내년 6월 수서역 개통시 6개월에 맞춰 KTX 광주역 운행재개, 서대선역 경우 익산행 KTX의 광주역까지 연장 운행 등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윤 시장은 또 광주역과 송정역을 연결하는 급행버스 노선 신설 등도 조속한 시일 안에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7일 노동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 청년층의 사회진출 시기를 정책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의원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주최로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초청강연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신체적 발육이 굉장히 빨라져서 15세 이상부터 근로를 할 수 있다"면서 "노동시장 신규진입 시기를 정책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 '6-3-3-4'(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인 학제의 조정 필요성을

김대환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앞당겨야"

"초등 1년, 중·고 1년 단축...6-3-3-4 학제 조정 필요"

언급한 뒤 "초등학교를 1년 단축하고, 중·고교를 합쳐서 1년 단축해도 학업에 무리가 없다"면서 "그래서 좀더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임금 체계도 하루빨리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 시행이 시작되는

리'도 쏟아냈다.

그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해 현행 2년에서 추가 2년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이것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안 된다"면서 "아주 미봉책이고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사정위원회가 진행하는 협상과 관련, "패키지딜을 하겠다고 합의해서 논의를 진행했는데 (정부)가 노동개혁 지원과 관련해서 하나씩 미리 발표하는 통에 줄 것은 미리 다 취버리고 나서 어려운 것만 갖고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NT 하나투어

제 11회 하나투어 웨딩&하니문 박람회
 2015. 9. 5(토) ~ 6(일) 11:00 ~ 19:00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 228-1199
 최대 140만원 할인 혜택
 독일 기펠 토스트기 제공
 사전 방문 상담 예약 시 다양한 특전 제공

하나하니문 추천 상품

캐주얼 [세미팩] 파리/로마/바티칸 7일
 총상품가 2,566,8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 경비 있음
 출발일 : 8월 ~ 12월 일/월요일
 특 전 : 몽파르나스 전담대 입장권, 몽파르나스 타워 레스토랑 코스 요리, 파리-로마 중간 구간 : 항공 이동

클래식 [KE직항] 이태리 일주 7일-스냅 촬영 3시간
 총상품가 3,024,4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EUR30 선택경비 있음
 출발일 : 8월 ~ 12월 일요일
 특 전 : 로마 전용 차량으로 관광, 피렌체·베니스 하니문 단독 가이드 투어·포함, 마짱골레(해물특식), 티본 스테이크 미니 포함

■여행상품 가격표(내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여행자보험료, 관광진흥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려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임.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변경될 경우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사전예약 내용은 일일모임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여행의 현지에서 고가의 선박에 대한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박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적관광 이외에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일모임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이전 시정액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지별 사전 통의를 받습니다. ■관광사립자 등록번호 제26004-1993-8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지하1층에 위치. ■최소 출발전 30명 / 호텔 /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상교통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신청/불만처리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9시) ■방문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항공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 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재산관리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류권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선택관광이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관광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 여행 지제 | 항공 권고 |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